

# 투데이 EBS

## 갈래별 정리

### <강사 : 유대종>

## <고전B>

B1

### (1)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房(방) 안에 켜 있는 燭(촉)불 누구와 離別(이별)하였건대,  
 곁으로 눈물 지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우리도 저 燭(촉)불 같아서 속타는 줄 모르는도다

1. '촛불'은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o,x)
2. 화자의 대상의 동일시를 통해 특정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o,x)
3.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o,x)
4.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 전문 풀이 :

방안에 켜 있는(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슬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 구조 분석

초장 : 임(단종)과의 이별  
 중장 : 별한(別恨)  
 종장 : 속이 타는 듯한 한(恨)

● 해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단종과의 이별을 촛불에 이입시켜 그 슬픔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과 종장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종장은 주제장으로 지은 이의 감정이 이입된 구절이다.

### (2) 바람 서리 섞어친 날에

風霜(풍상)이 섞어친 날의 갓 피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盃(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의 보내 오니  
 桃李(도리)야 꽃인 척 마라 님의 뜻을 알겠구나

1. '풍상'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는 시어이다.(o,x)
2. '황국화'는 쟁반에 담겨 작품 전체의 주제를 환기하는 중요한 사물로 드러나고 있다.(O,X)
3. '도리'와 '국화'의 유사성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O,X)
4. 화자가 보낸 황국화는 풍상을 이겨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O,X)

● 전문 풀이

바람과 서리가 뒤섞이어 내린 날에 이제 막 핀 노란 국화를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 홍문관에 보내시니, 복사꽃이나 오얏꽃아 너희들은 (따뜻한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니) 꽃인 척도 하지 마라. (서릿발을 이겨가며 피는 국화꽃을 보내신) 임금님의 뜻을 알겠구나.

● 해설 및 감상

이 시조의 제목은 '자상특사황국옥당가(自上特賜黃菊玉堂歌)'인데 흔히 줄여서 옥당가(玉堂歌)라고도 한다. 이 시조에서 근간(根幹)이 되는 단어는 도리(桃李)와 황국화(黃菊花)다. 복사꽃과 오얏꽃은 따뜻한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저버리는 꽃으로 예로부터 흔히 변절자(變節者)들을 상징하고, 국화는 사군자(四君子) 가운데 하나로서 차가운 겨울 서릿발 같은 추위를 이겨가며 피는 꽃으로 매화(梅花)와 더불어 지조(志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꽃이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흔히 고시조에서 즐겨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시조는 국화와 같이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어달라는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桃李)와 같이 변절하는 일이 없이 충성된 절개를 지키겠노라는 작자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 작자 : 송순(宋純 ; 1493 ~ 1583)
- ◁ 출전 : <진본 청구영언>
- ◁ 종류 : 평시조
- ◁ 성격 : 연군가
- ◁ 제재 : 도리, 황국
- ◁ 주제 :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 (3) 수양산 바라보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  
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ㅎ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ㅅㅅ히 ㄴㅅ드니

1. 이제와 자신을 견주어서 이제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o,x)
2.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ox)
3. 무상한 삶을 드러내면서, 변화하는 삶의 자세를 예찬하고 있다.(o,x)

● 전문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절개가 굳은 선비라고 말하는) 백이와 숙제를 오히려 지조가 굳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 해설 및 감상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작가가 자신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절의가의 대표작이다. 은나라의 충신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핵심 정리

- ◁ 작자 : 성삼문(1418~1456)                      ▷ 출전 : <청구영언>
-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지사적, 풍자적, 절의가, 연군가
- ◁ 제재 : 백이, 숙제의 고사                              ▷ 주제 : 굳은 절의와 지조

● 백이와 숙제의 고사

은나라 말 주왕이 폭정을 일삼으므로, 제후 서백(西伯 ; 周王)의 아들 발(發 ; 周武王)이 이를 치려 하자, 백이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仁(인)이라 하겠는가?” 하고, 만류했지만, 발이 끝내 紂(주)를 치는 것을 보고 “주나라의 녹은 먹지 않으리라.”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주려 죽었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은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으레 이들 형제를 들어 말하게 되었다.

## (4) 주려 주그려 하고

주려 주그려 하고 수양산에 드렸거니  
헌마 고사리 머그려 캐야시라  
물성이 그분 줄 먹어 퍼 보려고 캐미라

1.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사리를 먹은 화자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o,x)
2. 대상의 속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o,x)
3. 주고 받는 인물 간 대화를 통해 흥취있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o,x)

## (5) 안민가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ㄷㅅ살 어시여.  
민(民)은 ㄹ한 아히고 ㅎ살디  
민(民)이 ㄷ술 알고다.  
구물ㅅ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흘 머기 다스라  
이 ㅅㅅ할 브리곡 어디 갈더 ㅎ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ㅎ놀든  
나라악 태평(太平)ㅎ니잇다.

1.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O,X)
2. 첫 4구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뒤의 4구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정명적 도리를 말하고 있군.(보기형 문제)(O,X)
3.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을 가정하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O,X)
4.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조건을 임금의 말을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O,X)

■ 현대문 감상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다사살 어시여,  
민(民)은 ㄹ한 아해고 하살디  
민(民)이 다살 알고다.  
구물ㅅ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흘 머거 다사라.  
이따할 바리곡 어디갈더 ㅎ디  
나라악 디니지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하날단  
나라악 태평(太平)하니잇다.

■ 시어 풀이

- 다사살 : 사랑하실
- ㄹ한 : 어리석은, 또는 어린
- 구물ㅅ다히 : 꾸물거리며. 별다른 의식 없이 그날 그날 순응하며 살아가는.

- 이홀 : 이를, 이제
- 머거 : 먹어서, 먹음으로써
- 다사라 : 다스려져서
- 나라악 : 나라 안을 뜻하며, 목적어로 쓰였음

#### ▣ 핵심 정리

- 갈래 : 10구체 향가
- 연대 : 신라 경덕왕 24년(765년)
- 성격 : 교훈적, 유교적(치국안민)
- 표현 : 논리적, 직설적 어법
- 내용 :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표출된 정치 이념의 노래
- 특징
  -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향가(민본적 유교 사상)
  - 가정의 기본적 인륜 관계를 정치 사회적 관계에 비유하여 친근감과 설득력을 강화('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라는 가족 관계에 비유)- 청자층' 을 고려한 표현
    - \* 임금(아버지) : 나라를 이끌어 갈 책임이 있음
    - \* 신하(어머니) :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함
    - \* 백성(어린 아이) : 임금과 신하를 믿고 따라야 함
  - 표현 동기(예술성, 쾌락성)보다 전달 동기(목적성, 교훈성)가 강함
  -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어법 사용
- 주제
  - 치국 안민(治國安民)
  - 국태 민안(國泰民安)의 도(道)
  -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
- 창작 동기 : 임금에게 치국 안민의 도리를 권계하기 위해 지음, 민심을 수습하려고 애씀
- 구성
  - 1~4구 : 군(君)과 신(臣)과 민(民)의 관계 및 직분 - 비유적, 애민사상
  - 5~8구 : 통치의 근본(백성을 먹임) →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음 - 직설적, 민본사상
  - 9~10구 :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방안 : 각자 직분을 다함 → 나라가 태평해짐

####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다른 사뇌가와 마찬가지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장은 제4구까지로 여기에서는 나라의 계층 구성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과 같다고 하여 그 중에서 백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백성의 중요성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은 8구까지로 그 해석에는 이론이 있다. 양주동 풀이를 전제로 설명한다면 여기에는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잘 먹여 다스려야 한다는 훈계가 들어있다. 중장에서는 임금의 백성 사랑하는 뜻을 받아서 신하들도 백성의 아픈 데를 알아 줄 것 같으면 나라는 절로 태평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노래는 총담사(忠談師)가 지은 것인데 경덕왕의 명을 받아, 어떻게 하면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경덕왕 시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된 나라를 이룩할 것인가에 온 힘을 기울였다.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셋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당시의 시대 모습과 사회 정치의 윤리관이 깔려 있다. 총담사는 찬기파랑가의 작가이기도 하다.

## b2

### (1) 고공가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괴별을 아는다 모른다. 비오는 날 일 업술지 솟소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아버이 사롬스리 허려 홀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롬이 절로 모다, 풀 썬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畚(전답)을 起耕(기경)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ㄱ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움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자그나 동웃시 쪼코 즈나, 막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식오는 듯, 무숨 일 감드려 흘긋할긋 허느는다. 너희니 일 아니코 時節(시절) 좇추 소오나와, ㄱ득의 ㄱ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노되, 엇그지 火强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허나 불타 붓고 먹을 썬시 전혀 업다. 크나큰 歲事(세사)을 엇지허여 니로려료. ㄱ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 들아 식막음 먹어슬라.

너희니 절머는다 험 혈나 아니손다. ㄱ 소퓌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ㄱ 막흠 ㄱ 쫓으로 녀름을 지어스라.

(중략)

너희니 ㄱ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지 왓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허되, 너희니 귀는 업서 저런줄 모르관되, 화살을 전혀 얻고 옷밥만 닷토는다. 너희니 다리고 톱나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춘 저녁 더 허다 먹엇거든, 은혜란 심각 아녀 제 일만 허려하니, 험 헤는 새 들이 리 어닉제 어더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위드라허며셔 ㄱ ㄱ 소리 다 쫓고래라.

1. 고공은 현재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서 이를 주인이 경계하고 있다.(o,x)
2. 현재 주인은, 자신의 고공의 근검함을 매우 칭찬하고 있다.(o,x)
3. '요사이 고공'과 '이전의 고공'을 대비시켜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o,x)
4. 고공은 화강도를 비유한 표현으로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연민의 감정을 복잡적으로 지니고 있다.(o,x)
5.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o,x)

조선 중기 임진왜란 직후에 허전이 쓴 노래로,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통렬히 비판한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글 전체가 우의적 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의 한 어버이'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여드레갈이'는 곧 조선의 팔도(八道), '고공(雇工)'은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신하를, '화강도'는 임진왜란 때의 왜적을, '농사'는 나라일(國事)을, '밥사발'은 신하들이 지급받는 녹봉을 각각 비유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임진년의 환란 때 왜구들에게 온 삼천리강산이 무참하게 유린되어 온 산하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는 신하들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머슴'에 비유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그리하여 '머슴'들로 지칭된 그들 신하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작자의 숨겨진 목적일 것이다.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른다. 비오는 날 일 업술지 솟소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소리 흐려 흘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썬고 터을 닦가 큰 집을 지어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畚(전답)을 起耕(기경)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7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 구절 풀이

\* 얻고 : 엮어 놓고. 제쳐 놓고 \* 들먹는 : 빌어먹는 \* 고공(雇工) : 머슴, '조정'의 신하'를 뜻함 \* 우리 집 기별 : '조선의 역사'를 비유한 말 \* 일 업술지 : 일이 없을 때, 일이 없고 한가할 때 \* 솟 소면서 : 새끼를 꼬면서 \* 처음의 한어버이 :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가리킴 \* 사름소리 흐려 : 살림살이 하려 \* 모다 : 모여서 \* 썬고 : 깎고, 베고 \* 터을 닦가 : 터를 닦아,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 셔리 :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 보습 :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 삽 모양의 쇳조각으로 쟁기나 극쟁이의 술바닥에 맞추

어 끼운다. \* 기경(起耕) : 땅을 갈아 논밭을 만들 \* 오려논 : 올벼를 심은 논 \* 여드레 7리 : 8일 동안 갈 만한 넓은 땅, '조선 팔도'를 의미함 \* 전계(傳繼)하야 : 전하고 계승하여

#### 현대어 풀이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집을 지어내고, 썬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가니,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도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사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짜그나 동웃시 죠코 즈나, 머슴을 닷호는 듯 호슈를 시오는 듯, 무슴 일 감드려 흘깃할깃 흐느낀다. 너희니 일 아니코 時節(시절) 좃츠스오나와, 7득의 니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나, 엇그지 火强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붓고 먹을 썬시 전혀 업다. 크나큰 歲事(세사)을 엇지하여 니로려료.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시름을 먹어슬라.

#### 구절 풀이

\* 여름지어 가을여리 : 농사지어 부유하게(풍요하게) \* 험 : 생각, 사례, 분별 \* 밥 사발 :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뜻함 \* 죠코 즈나 : 좋거나 나쁘거나 \* 닷호는 : 닷투는 \* 호슈(戶首) : 우두머리 \* 시오는 : 시기하는 \* 감드려 : 감겨들어 \* 흘깃할깃 : 눈을 흘기며 반목질시하는 모습 \* 시절(時節) 좃츠스오나와 : 시절조차 사나워, 흥년조차 들어서 \* 7득의 : 가뜩이나 \* 세간 : 살림 \* 플러지게 : 줄어들게 \* 화강도(火强盜) : 왜적을 일컬음 \* 세사(歲事) : 세간을 \* 니로려료 : 일으키려는가?

#### 현대어 풀이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닷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에 얽혀들어 힐끗거리며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흥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강도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너희니 절머는다 험 혈나 아니스나. 훈 소티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훈 머슴 훈 뜻으로 녀름을 지어스라. 훈 집이 가을 열면 옷밥을 分別(분별)하라.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몰니. 밭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더져두고,

늘 도흔 호미로 기음을 미야스라. 山田(산전)도 것츠렸고 무논도 기워간다. 사립피 물목 나셔 벗 겨티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민 후의, 솟꼬기 뉘 잘하며 섬으란 뉘 엇그랴.

**구절 풀이**

\* 험 혈나 : 생각하려고 \* 매양 : 항상, 늘 \* 회회(恢恢) : 서로 다투는 모양 \* 녀름 : 농사, '티름'으로 된 것도 있음 \* 가음열면 : 부유하게 되면, 풍년이 들면 \* 분별(分別)하랴 : 차별하랴. 인색하게 하랴 \* 살마 : 갈아 \* 세워 : (벼를) 세워, 심어 \* 놀 : (호미의) 날 \* 미야스라 : (김을) 매자꾸나 \* 것츠렸고 : 거칠어졌고 \* 기워간다 : (잡초 등이) 무성하여간다 \* 사립피 : 도롱이와 샷갓 \* 물목 나셔 : 말뚝을 놓아서, (허수아비를) 박아 세워서 \* 솟 꼬기 : 새끼 꼬기 \* 섬 : 곡식을 담기 위해 짚으로 엮은 가마니

**현대어 풀이**

너희는 줍다 하여 생각조차 아니 하려고 하느냐? 한 술에 밥 먹으면서 항상 다투기만 하면 되겠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인색하게 하랴?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갈고 논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두고, 날카로운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우거지고 무논에도 풀이 무성하다. 도롱이와 샷갓을 말뚝에 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벼 곁에 세워라. 칠월 칠석에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새 끼는 누가 잘 꼬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 지조 세아려 자라자라 맞스라. 7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랴. 집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네 무더라. 너희 지조을 내 斟酌(짐작)하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하려므나. 명석의 벼를 년들 도흔 히 구름 씨여 벗뉘을 언지 보랴. 방하을 못 씨거든 거츠나 거츰 오려, 옥갓튼 白米(백미)될 줄 뉘 아라 보리스니,

**구절 풀이**

\* 세아려 : 헤아려 \* 자라자라 : 서로서로, 자주자주 \* 맞스라 : 말아라 \* 7을 거둔 : 추수한 \* 성조(成造) : 집을 짓는 것 \* 움 : 겨울철에 채소를 넣어 두기 위해 땅을 파고 거적 따위로 덮은 것 \* 머글 일 : 먹고 살 일 \* 벗뉘 : 햇볕 \* 오려 : 올벼, 이른 벼

**현대어 풀이**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추수를 한 후에는 집 짓는 일을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네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생각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넣어 말린들 좋은 해를 구름이 가려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찻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가 옥같이 흰쌀이 될 줄을 누가 알겠는가?

너희니 드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니 귀는 업서 저런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언고 옷밥만 닷토는다. 너희니 다리고 틱는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춘 저녁 더 하다 먹엇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하려하니, 험 헤는 새 들이리 어니제 어더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이드라 하며셔 샷 훈 소리 다 쏘괘라.

**구절 풀이**

\* 새 소리 : 새 살림 \* 엇그지 왔던 도적 : 엇그제 쳐들어 왔던 도적, '왜적'을 말함 \* 귀는 업서 : 듣고 보지를 못 해서 \* 모르관디 : 모르기에 \* 화살을 전혀 언고 : 화살을 모두 잊어버리고, 적과 싸울 방비를 전혀 하지 않고 \* 닷토는다 : 다투는가? 싸우는가? \* 틱는가 : 추운가 \* 죽조반(粥早飯) : 조반 전에 먹는 죽 \* 싱각 아녀 :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 험 헤는 : 헤아릴 줄 아는 \* 새 들이리 : 새 머슴을 \* 어더이셔 : 얻어서, 새로 고용하여 \* 니즈려뇨 : 잊을 수 있겠는가? \* 이드라 하며셔 : 애달파하면서 \* 샷 훈 소리 : 새끼 한 뭉치 \* 쏘괘라 : 꼬도다

**현대어 풀이**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방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지 굶주리는지 염려하며, 죽조반 아침저녁을 다 해다가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안일을 맡기고 걱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을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도다.

**핵심정리**

연대: 조선 선조 때(임진왜란 직후)  
성격: 교훈적, 경세적(警世的)  
주제: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비판

**해설**

농가의 한 어른이 바르지 못한 머슴들을 깨우치기 위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정사를 게을리 하는 조정 대신들의 무능함을 깨우치고 경계하는 글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내용 중 '우리 집'은 '우리나라', '처음의 한 어버이'는 '이태조', '여드레가리'는 조선 팔도, '화강도'는 '왜적'을 각각 은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내온 내력을 소개하고 조정의 대신들이 정사를 게을리 하고 당파싸움만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왜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허전이 쓴 노래로,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그렇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유교적 이상이 깨어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그러한 현실을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나태한 모습을 은유적 수법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의 화답가(和答歌)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가 있다.

## (2) 용부가

흥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 보소.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머니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만동서여. 요악(妖惡)한 아우동서 여우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奴僕) 들며나며 흥구덕에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여기 저기 사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숫병을 기우리며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짚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볼까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라.

겉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 받아 맞닥수요 들고 나니 초롱군에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 저기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며는 음식(飲食) 공론,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衣服) 가지 다 내 주고 남편 모양 볼작시면 삼살개 뒷다리요,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솔개미라.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집 저집 이간질과 음담패설(淫談悖說)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절러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1. 대상의 행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o,x)
2. 작가의 시누이, 만동서가 작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있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o,x)
3. 시부모와 남편의 말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시적 화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o,x)
4. 삼살개 뒷다리와 솔개미는 넉넉하고도 부유한 가정 환경을 보여주는 소재이다.(o,x)
5. 불공을 드리는 것에 대해 시적 화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O,X)
6. 대상의 행동을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고 있다.<보기 제시형> (o,x)

7. 대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권계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보기 제시형> (o,x)

용렬한 부인 '용부'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저지르는 악행들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식구들의 흥을 보는 도입부와 점치기와 치장으로 소일하는 모습, 불공과 무당 소경 푸닥거리로 일을 삼는 행태가 전개되는 전개부의 내용은 다소 과장되기는 했지만, 직설적인 서술과 풍자가 함께 어우러져 생동감을 준다.

그러나 작품의 끝에서 이러한 용부의 비행을 탄산지적으로 삼아 그른 일을 고치는 데 힘쓰라는 말로써, 이 가사가 부녀자의 행실을 경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열거한 용부의 행위들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요, 용부는 희화화된 인물인 것이다.

### ▶ '용부가'의 서술자 및 등장인물

• 등장인물 '용부'

'남녀 노복'을 거느리고 '양반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 여성 양반이다. 그러나 노래에서 표현되는 시집살이는 양반 여성의 시집살이와는 크게 다르다. 이 점에서 그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 봉건적인 속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양반 여성과는 달리 '용부가'의 부인은 봉건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숫병을 기우리며',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 등에서 사회의 윤리 관념을 과감히 혁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의 변화된 여성 삶의 단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서술자(화자)

전달자이자 비판자이자 경계하는 자이다. 용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전달한다.

## b3

### (1) 산촌에 눈이오니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문혔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누 있으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게 벗인가 하노라

1. '시비를 열지 않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의 이미지를 환기한다.(o,x)
2. '일편 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어이다.(o,x)
3. '눈'은 화자로 하여금 속세를 생각나도록 환기하는 시어이다.(o,x)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부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스대에 몰아서 奚琴(히금)을 허거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빙 브른 도그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잠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  
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  
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으리라.

<제4수>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은 내적 부  
조화 상태에 있다.

② (가)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  
고 있다.

③ (나)는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가),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  
고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서로 다른 지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2. (나)의 화자가 여행 중에 <보기>의 화자와 나눈 대화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년납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蕪笠은 씨 잇노라 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헌 빅구논 내 좇논가 제 좇논가

水國의 ㅁ올히 드니 곡기마다 스저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頃澄波의 슬긱지 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① (나) : 나라가 어지러우니 자연에 와도 수도 쪽에 자  
꾸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② <보기> : 아직 미련이 남으셨군요. 저는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③ (나) : 사랑하는 임금님이 잘 지내시는지 항상 생각이  
나긴하지만 그래도 결국 전 자연을 선택했어요.

④ <보기> : 좀 더 살아가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어부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⑤ (나) :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는 하네요.

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의 2연의 '새'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  
해 쓰인 소재야.

② (가)의 4연의 '밤'은 화자의 의욕을 드러내는 공간이겠  
군.

③ (나)의 '백구'는 '한운'과 유사한 대상으로서 화자는 입  
체적으로 공간미를 드러내고 있어.

④ (나)의 '백구'는 무심한 존재이기에 화자의 내적 갈등  
이 표면화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군.

⑤ (나)의 '북궐'은 (가)의 3연의 '새'와는 달리 미련의 대  
상이겠군.

4. (나) 마지막 연과, <보기>를 연관시켜 해석하였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한 해석은 무엇인가?

<보기>

黃雀何方來去飛(황작하방래거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일년농사부증지)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환옹독자경운료)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밟는데,

耗盡田中禾黍爲(모진전중화서위)

밭의 버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①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참새'와 같이 '늙은 할아버지'를 착취하는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군.
- ②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늙은 할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③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참새'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④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늙은 할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⑤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일년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늙은 할아버지' 때문이겠군.

5.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願言<sup>3</sup>利門  
 부모께 받은 몸 상하게 말라 不使損遺體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爭探珠者  
 목숨 가벼이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輕生入海底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身榮塵易染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네 心垢非難洗  
 담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澹泊與誰  
 세상사람들단술을즐기거니 世嗜甘醴

- ① (나) : 당신 역시 세속에 대한 거리가 있군요. 세상은 붉은 먼지와도 같지요.
- ② <보기> : 맞습니다. 티끌과 때가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완벽하게 속세를 잊지 못하였군요.
- ③ (나) : 당신 말이 맞아요. 아직 임금님과 나라에 대한 걱정엔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 ④ <보기> : 당신이 아니더라도 담박한 맛을 아는 세상의 인재들은 많습니다.
- ⑤ (나) : 하긴 그래요. 설마 나라를 구할 현명한 인재가 없을까. 결국 전 결국 자연을 선택하겠지요.

● 전문 풀이

- [1] 이러한 생활(어부 생활) 속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 최고로다.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사를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라.
- [2]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어수선한 세상사)는 얼마나 가려 있고,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 [3]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벼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이 우거진 필기에 배를 매어두니,  
이런 일반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 [4]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 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 [5]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을 새가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이 아난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

● 해설

漁父歌(어부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12장으로 된 장가와 10장으로 된 단가로 전해져 왔는데, 이현보가 이를 개작하여 9장의 장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다. 농암의 어부는 한자어가 많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점을 지녔으며, 정경의 묘사도 관념적이다. 후에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다.

● 감상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하는 풍류객으로서 漁父[가어옹(假漁翁)]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우리 선인들이 옛부터 요산 요수(樂山樂水)의 운치 있는 생활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 속에 묻혀 은일을 즐겼을망정 마음속에는 인간사(人間事)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니, '인세(人世)를 다 니졌거니'와 '니즌 스치 이시랴'라 한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으로 애국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정경의 묘사나 생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냄이 없이 '千尋錄水(천심녹수), 萬疊靑山(만첩청산)'과 같이 상투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 핵심 정리

- ◁ 작자 : 이현보(李賢輔 ; 1467~1555)      ▷ 출전 : <농암집>
- ◁ 종류 : 연시조[5수로 됨]                      ▷ 제재 : 어부(漁父)의 생활
- ◁ 주제 :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漁父)의 한정(閑情)
- ◁ 내용 : 멀리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하며 자연에 흥취를 즐기는 어부의 생활

(4) 집방석 내지 말아라

집방석 너지 마라 落葉(낙엽)엔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온다  
 아히야 濁酒山菜(탁주산채)일만정 업다 말고 내  
 여라

- 1. 낙엽과 달은 화자의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들이다.(o,x)
- 2. 낙엽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부여하는 대상이다.(o,x)
- 3. 자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 4.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근

감을 부여하고 있다.(o,x)

● 전문 풀이

깊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앉지 못하겠느냐.

관솔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졌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애야!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진수 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변변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없다 말고 내 오너라.

● 해설 및 감상

이 시조를 읽으면 작자 자신의 필체(筆體)와 흡사한 호재 호방함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손쉽고도 가까운 소재를 잡아다가 쉬운 말로 가깝게 쓰고 있는 그 품이 다른 작가와 아주 판이하다. 초장에서는 그의 인품의 소탈함을 보여주고 있고, 중장에서는 '달'을 풍류의 대상으로서만 국한시키는 종래의 상투적인 수법과는 달리 어둠을 비치는 광명(光明)의 존재로까지 쉽게 끌어들이, 탈속(脫俗)한 선인(仙人)의 세계까지 드러내는 비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곧 인공적인 모든 것과 세속 잡사(世俗雜事)에 얽매임이 없이 주객 일체(主客一體)의 심경에서, 산촌의 가을밤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을, 그리고 다시 인간과 인간의 우애와 화합을 깊고 높은 섭리로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 작자 : 한호(韓濩 ; 1543~1605)      ▷ 출전 : <병와가곡집>
-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전원 한정가
- ◁ 제재 : 산촌 생활      ▷ 주제 : 산촌 생활의 안빈 낙도
- ▲ 정서 : 여유와 한가로움

### (5) 田園(전원)에 나온 흥(흥)을

田園(전원)에 나온 흥(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溪山(계산)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온 희를 보내리라.

1. 발을 저는 나귀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o,x)
2.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o,x)
3. 거문고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이다.(o,x)
4.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 전문 풀이

전원에 남은 흥취를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서, 계곡을 끼고 있는 산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야, 거문고와 서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 해설

자연 속에서 실컷 풍류를 즐기며 놀다가 발을 저는 나귀에 몸을 싣고 돌아와,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보내려는 작자의 모습은 한가함과 여유로움이 가득 찬 모습이다. 특히 '전원'은 심미의 대상이 아니라 풍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대(前代)의 상황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 감상

전원과 산수(山水)는 우리 옛분네들의 안식처요, 귀의처(歸依處)이다. 안분지족(安分知足)과 안빈 낙도(安貧樂道)를 삶의 방식으로 여겼던 이들이기에 자연스럽게 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의 흥취를 만끽하였던 것이다. '전나귀에 남은 흥을 싣는다'는 표현은 절로 미소를 피게 하며, '나쁜 희'는 중의적 표현으로 '남은 세월(歲月 ; 餘生)의 뜻이 더 강하다.

● 핵심 정리

- ◁ 작자 : 김천택(? ~숙,영조 때)      ▷ 출전 : <청구영언>
- ◁ 종류 : 평시조      ▷ 성격 : 강호 한정가(중의적)
- ◁ 제재 : 전원의 흥취      ▷ 주제 : 자연 속에서 누리는 풍류
- ▲ 정서 : 한가로움과 여유로움

## B4

### (1) 무어별

十五越溪女 (십오월계녀)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羞人無語別 (수인부어별)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歸來掩重門 (귀래엄중문)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泣向梨花月 (음향이화월)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1. 시적 상황에 작가가 개입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O,X)
2. 배꽃과 달은 유사한 색채 이미지로서 시적 대상의 정서를 환기한다.(O,X)
3. 이별의 슬픔과 극복 의지를 순차적으로 보이고 있다.(O,X)
4. '배꽃'은 임과의 사이가 틀어졌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군(O,X)

### (2) 서방님 병 들여 두고

서방님 병 들여 두고 쓸 것 업서  
鐘樓(종루) 저저 달리 파라 배 소고 감 소고 柚子(유자)



아무 사람 만나볼 때 헛웃음이 절로 나고  
 무안하여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절로 나네  
 웃지 말고 새침하면 남 보기에 매몰차고  
 불평 풀이 하자 하면 심술궂은 사람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이러하기 더 어렵고 저리하기 더 어렵다  
 아주 죽어 있자 함이 한두 번이 아니로다  
 목숨이 길었던지 무슨 낙을 보려던지  
 날이 가고 달이 가며 갈수록 서러운 심사  
 어찌하고 어찌하리 베개를 탁 던지고  
 입은 채로 드러누워 옷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을 두드리면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맺힌 마음 절로 난다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하랴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 볼 일 아득하다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며  
 종매 매파 불러다가 기운 조작으로  
 번듯하게 구훈하면 어찌 아니 못 되랴  
 이렇게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음식 먹고 체한 병에 정기산을 먹은 듯이  
 급히 앓은 객란병에 청심환을 먹은 듯이  
 활짝 일어나 앉아 돌콩대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궁리하되  
 내 서방을 내 가리지 남더러 부탁하랴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생각을 못 냈던고  
 만일 벌써 깨쳤으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마음 먹고 생각하니 아주 쉬운 일로다.

1. 시적 화자는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o,x)
2. 시적 화자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회피하고 있다.(o,x)
3. 시적 화자가 구훈을 결정한 뒤, 너무 기쁜 나머지 먹었던 음식이 탈이나서 고생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o,x)
4. '베개'를 던지는 행위는 시적 화자를 바라보는 매파의 답답한 마음의 표출로 볼 수 있겠군.(o,x)

## (2) 덴동어미화전가

[중략된 부분의 내용]

부인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서 글을 외우거나 노래와 춤으로 즐기다가 어떤 젊은 과부가 개가(改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설움을 토로한다. 그러자 덴동 어미가 나서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한다. 덴동 어미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나 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신량이 그네를 뛰다 떨어져 죽고 만다. 개가하여 역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시집이 이포[吏漚, 구실아치가 공금을 집어쓴 빛]를 많이 지게 되자 그것을 갚느라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 유랑하던 부부가 경주에서 군노(軍奴)가 경영하는 여각에서 안팎으로 담살이를 하며 누만금을 저축하였으나 괴질로 낭군이 죽고 빚은 준 사람들도 다 죽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어지는 부분은 덴동 어미가 다시 옹기장사를 하는 울산의 황 도령을 만나 그의 인생 역정을 듣는 부분이다.

[가]

여보시오 말씀 들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히 숨숨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은  
 홍문(紅門)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  
 패가 망신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할까 보  
 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한다  
 조석(朝夕)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돌이 먹고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백이나 될 만하면 돌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려 약시세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 모아 또 돈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도부 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틀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굶은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북아치며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 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東海水)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굴런고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南海水)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그 주막에나 있었다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이런 일을 아니 볼걸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고 도부 광우리 무여 박고  
 해암 없이 앓았으니 역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좋겠구만 생한 목숨이 못 죽을네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 댁네가 강권  
 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나]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관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앓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晃然大覺) 깨달아  
 서

덴동 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두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 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 볼까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실실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실실 녹네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봄 춘 자 만난 꽃 화 자요 꽃 화 자 만난 봄 춘  
 자라

1. 재가를 들면서 덴동어미의 상대방 신분이 점차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o,X)
2.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덴동 어미의 모습이 덴동 어미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o,X)
3. 덴동어미가 셋째 남편을 잃고 좌절하면서 넷째 남편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o,x)
4. 덴동어미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재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o,x)
5. ‘청춘과부’가 겪은 남해수에서의 고생은 덴동어미의 발화에 긍정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o,x)

### (3) 시집살이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덥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짚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아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 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얼굴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 이겼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1.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o,x)
2. 대구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o,x)
3. 인물들의 성격을 활용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O,X)
4.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O,X)
5. 거위와 오리는 화자에게 대비되어 비판이 되는 대상이다.(O,X)
6. 과장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 상황과 그로 말미암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O,x)

## b6

### (1) 대추 불 붉은 골에

대초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  
벼 뵈 그르헤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해설) 대추가 발갈게 익은 골짜기에 밤까지 익어 똑똑 떨어지며,  
벼를 뵈 그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마침 햅쌀로 빚어 놓은 술이 익었는데 체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새 체로 술을 걸러서 먹지 않고 어찌리.

1. '대추'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O,X)
2. 감각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O,X)
3. 고도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O,X)
4.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O,X)
5. 의문형 어투를 사용하여 술로 인해 고통을 해소해야만 하는 화자의 비애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o,x)

6.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후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과의 예기치 못한 이별로 말미암은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현 상황을 자랑하고 있다.
- ③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의 소재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교훈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 전문 풀이

대추가 발갈게 익은 골짜기에 밤까지 익어 똑똑 떨어지며,  
벼를 뵈 그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마침 햅쌀로 빚어 놓은 술이 익었는데 체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새 체로 술을 걸러서 먹지 않고 어찌리.

#### ● 해설

초장과 중장은 추수가 끝난 늦가을의 풍치(風致)를 나타낸 것이며, '게'가 내려옴은 벼를 뵈 논에서 먹이를 구하러 나오는 정경이다. 종장의 내용은 '장수 나자 용마 난다'와 같은 격으로 '밤→게→술→매 맞춘 체 장수' 등은 바로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다.

#### ● 감상

민족적 정서인 '뗏'이 잘 표현된 노래로, 아름답고 정겨운 농촌의 풍경이 한 폭의 풍속도처럼 펼쳐지고 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한 장면 한 장면은, 치사귀향(致仕歸鄉)하여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가 흠뻑 풍기며 나타난다. 한호(韓濩)의  '집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안즈랴'와 그 격이 어울리는 작품이다.

#### ● 핵심 정리

◁ 작자 : 황희(1363~1452)

◁ 종류 : 평시조,

◁ 성격 : 풍류적, 낭만적, 목가적, 한정가, 자연과 인정(人情)을 노래

◁ 출전 : <청구영언>

◁ 제재 : 늦가을 농촌

◁ 주제 : 추수가 끝난 늦가을 농촌의 풍치 있는 생활상

### (2) 봉선화가

향규(香鬪)에 할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를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 냈는가.  
신선의 옥피리 소리가 선경으로 사라진 후에,  
규방에 남은 인연이 일지화(一枝花)에 머물렀으니,  
유약(柔弱)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가 넘노는 듯하며  
아름다운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하다.  
고운 섬돌 깨끗한 흠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소.

취한 나비와 미친 벌들이 따라올까 두려워서라네.  
정숙하고 조용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벗하겠는가? (중략)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서 누웠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한 여자가 표연히 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떨어져서 가득히 수를 놓았다.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으며  
꽃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세세(世世) 연년(年年) 꽃빛은 옛날과 같으며,  
더구나 그대 자취가 내 손톱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동산의 도리화(桃李花)는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지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그대들이 적막하게 떨어진들, 누가 슬퍼할고?

안방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일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로구나!

1. 위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분하되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명은 약간 밝게 해야겠어.
- ② 뒷부분에 또 다른 꽃 노래를 넣어서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듯해.
- ③ 나비나 벌이 없는 봉선화 그림에 화자의 모습을 중첩시켜서 정숙함을 강조해야겠어.
- ④ 봉선화 물들이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⑤ 꿈 속 장면을 삽입하여 봉선화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어.

3. 위 시의 봉선화(a)와 (보기)의 ㉠을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고준 므스 일로 꺾여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하노라.  
- 윤선도

- ① ㉠은 꽃의 일시성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는 꽃의 영원성에 만족하고 있다.
- ② ㉠은 꽃의 외면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지만, ㉡는 꽃의 내면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 ③ ㉠은 꽃의 가변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는 꽃의 한결같은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과 ㉡는 모두 꽃이 주는 친숙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꽃의 신비로운 느낌에 감탄하고 있다.

■ 본문 감상

□. 서사 - 백화보에서 본 봉선화의 아리따운 모습

향鬪(향규)의 일이 업서 百花譜(백화보)를 헤쳐보니,  
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내고.

↳ 부녀자 방의 미칭(美稱) ↳ 온갖 꽃에 대한 설명을 쓴 책  
眞游(진유)의 玉簫(옥소) 소리 紫煙(자연)으로 행흔 후에,  
閨中(규중)의 나은 因緣(인연)  
↳ 신선 놀음 ↳ 가버린  
↳ 아녀자가 거처하는 방  
一枝花(일지화)의 머므르니, 柔弱(유약)흔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는 듯. 自若(자약)히  
붉은 꽃은 紫霞裙 (자하군)을 헤쳐는 듯.  
↳ 백화보의 봉선화 ↳ 신선의 옷

규방에 할 일이 없어 백화보를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 냈는가. 신선의 옥피리 소리가 선경으로 사라진 후에, 규방에 남은 인연이 한 가지 꽃에 머물렀으니, 연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가 넘노는 듯하며, 아름다운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하다.

□. 본사 1 - 향기 없는 봉선화는 정숙한 여인의 기상

↳ 깨끗한  
白玉(백옥)섬 조흔 흥게 종종이 심어내니, 春三月(춘삼월)이 지난 후에 香氣(향기) 업다  
↳ 희고 고운 섬돌 ↳ 촘촘히

↳ 두려워  
지네  
웃지 마소. 醉(취)흔 나비 미친 벌이 썩르올가 저허흔네.  
貞靜(정정)흔 氣像(기상)을 녀자

↳ 방탕하고 경박스러운 남자를 비유한 말 ↳ 정숙하고 조용한 벗과 닮아 벗히고.

고운 섬돌 깨끗한 흠에 촌촌히 싶어 내니, 불 샅왕이 지난 후에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시오. 취한 나비와 미친 벌들이 따라올까 두렵워서라네. 정숙하고 조용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벗하겠는가?

□. 본사 2 -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

가까이 두는 젊은 여자 중 ↳ 玉欄干(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보아, 紗窓(사창)을 半開(반개)하고 又鬢(차환)을

↳ 여인이

기거하는 방의 창 불너너, 다 핀 꽃을 키여다가 繡箱子(수상자)에 다마노코, 女工(여공)을 그친 후의 中堂

↳ 소놓는 도구를 넣어 둔 상자

↳ 바느질 (중당)에 밤이 깊고, 蠟燭(납촉)이 발갛을제 나음나음 고 초 안자, 흰 구슬을 가라마아 氷玉

↳ 집 안채 ↳ 밀초불 ↳ 점점 ↳ 곳곳이 ↳ 갈아 바수어

(빙옥)큰손 가온디 爛漫(난만)이 개여너, 波斯國(파사국) 저 諸侯(제후)의 紅珊瑚

↳ 여인의 예쁜 손 ↳ 흐드러지게 ↳ 페르시아

아 (홍산궁)을혀쳐는 듯, 深宮風流(심궁 풍류)

↳ 붉은 산호 궁궐 ↳ 깊은 궁궐의 풍류

↳ 절구

절고에 紅守宮(홍수궁)을 마아는 듯, 纖纖(섬섬)한 十指上(십지상)에 수실로 가마너니, 조

↳ 붉은 도마뱀 ↳ 가늘고 고운

희 우희 불근 물이 微微(미미)히 숨의는 양, 佳人(가인)의 야튼 싹의 紅露(홍로)를 끼쳐는

↳ 종이 ↳ 스며드는 ↳ 알은 빵 ↳ 붉은 이슬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에

사는 선녀 ↳ 듯, 단단히 봉헌 모양 春羅玉字(춘나옥자) 一封書(일봉서)를 玉母(왕모)에게 부쳐는 듯.

↳ 비단에 옥으로 박은 글씨 ↳ 한통의

편지

긴긴 날 옥난간에서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쯤 열고 차환을 불려내어, 다핀 봉선화꽃을 따서 수상자에 달아 놓고, 바느질을 중단한 후 안채에밭이 깊어 밑촉불이 밝았을 때, 촌촌차촌 곳곳이 앉아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같이 고운 손 가운데 흐드러지게 개어 내니, 페르시아 제후가 좋아하는 붉은 산호 궁궐 헤쳐 놓은 듯하며,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붉은 도마뱀을 빵아 놓은 듯하다.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갈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모양은, 미인의 뺨 위에 홍조가 어리는 듯하며, 단단히 묶은 모양은 비단에 옥으로 쓴 편지꼴 서왕모에게 부치는 듯하다.

□. 본사 3 - 봉선화물이 든 손톱의 아름다움

春眠(춘면)을 느초 깨여 차례로 풀어 노코, 玉鏡臺(옥경대)를 대혀서 八字眉(팔자미)를

↳ 늦게 ↳ 팔자 모양의 눈썹

↳ 어지러이

그리래니, 난데 엮는 불근 꽃이 가지에 부터는 듯. 손으로 우희라니 紛紛(분분)이 훑터지

↳ 손톱 끝에 붉은 물이 든 것을 가리

킴. ↳ 움켜 잡으려 하니

고, 입으로 불려 하니 석긴 안개 가리왔다.

↳ 입김이 거울에 서린 것을 가리

킴

↳ 여자 친구

女伴(여반)을 서로 불려 朗朗(낭랑)이 자랑하고, 쪽 압희 나아 가서 두

↳ 명랑한 마음으로 즐거이

빗힐 比較(비교)하니, 쪽납희 푸른물이 쪽의여서 푸르단 말이 아니 오를손가.

↳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

빛보다 푸르다는 말.

봄잠을 늦게 깨어 열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려고 하니,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하여,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풀어지고 입으로 불려고 하니 입김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여자 친구를 불러서 즐겁게 자랑하고, 봉선화 앞에 가서 꽃과 손톱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것이 아니 옳겠는가?

□. 결사 - 규중 처자와 봉선화와의 인연

홀 짝

떠나거나 나타나는 모양 ↳

은근이 풀을 매고 돌아와 누엇더니, 綠衣紅裳(녹의 홍상) 一女子(일여자)가 飄然(표연)이

↳ 푸른 저고리와 붉

은 치마(봉선화)

앞희 와서, 웃는 듯 썩기는 듯 謝禮(사례)는 듯 下直(하직)는 듯, 朦朧(몽롱)이 잠을 썩어

↳ 썩그리는 듯

↳ 어렵듯이

丁寧(정녕)이(-공공히) 칭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와 下直(하직)한다.

繡戶(수호)를 급히 열고 꽃수풀을 점검하니,

↳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 ↳ 살펴보니

자우희 불근 꽃이 가득히 수노한다. 黯黯(암암)이 슬허하고 낮 낮티 주어담아, 꽃다려 말 부치던 그덕

↳ 마음이 상함

는 恨(한)티 마소. 歲歲(세세) 年年(연년)의 꽃빛은 依舊(의구)하니, 허물며 그덕 자최 내 손에 머물

↳ 해마다

↳ 옛날과

같음

이십번(二十番): '이십사번 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 소 한에서 곡우까지 5일마다 봄바람이 분다하여 꽃 한 가지씩을 배당했음)' 을 말함인 듯

↳

러지. 東園(동원)의 桃李花(도리화)는 片時春(편시춘)을 자랑

마소. 二十番(이십번) 꽃바람의 寂寞  
 ↳ 동산 ↳ 복숭아꽃과 오얏꽃 ↳ 잠깐 지나가는 봄  
 (적막)히 떠러진들 뒤라서 슬허홀고. 閨中(규중)에 남은 因緣  
 (인연) 그딴 혼몸 썬이로세. 鳳仙花(봉선화) 이 일흠을 뒤  
 라서 지어넌고 일로호야 지어서라. <貞一堂 雜誌>  
 ↳ 이것으로 하여

은근히 꽃을 매고 돌아와서 누웠더니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홀연히 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색하는 듯, 하직하는 듯하다. 어쩔곳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을 고한 것이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위에 붉은 꽃이 떨어져서 가득히 수를 놓았다.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달으며 꽃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옛날과 같으며, 더구나 그대 [봉선화] 자취가 내 손톱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동산의 도리화는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지 마소. 이십사 번 꽃바람에 그대들 [도리화]이 적막하게 떨어진들, 누가 슬퍼하겠는가? 안방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일세. 봉선화 이 이 들을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로구나!

▣ 본문 해석

□. 서사 - 백화보에서 본 봉선화의 아리따운 모습  
 향규(香鬪)1)의 일이 업서 百화보(百花譜)2)를 혀쳐3) 보니  
 /규방에서 할 일이 없어 여러 가지 꽃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을 펼쳐보니

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넌고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진유4)(眞遊)의 옥소(玉簫)소리 죽연5)(紫煙)으로 행(行)호 후의

/신선이 부는 옥피리 소리가 선경으로 사라진 후에  
 규등6)(閨中)의 나은 인연(因緣) 일지화(一枝花)의 머므르니

/안방에 남은 인연이 한 가지의 꽃에 머무르니  
 유약(柔弱)호 프른 입흔 봉의 소리 넘너논7) 듯  
 /부드럽고 연약한 푸른 잎은 봉향새의 꼬리가 넘나들며 노는 듯하고

죽약(自若)8)히 붉은 꽃춘 죽하군(紫霞裙)9)을 혀쳐논 듯  
 /아주 곱게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쳐 놓은 듯하다.

□. 본사 1 - 향기 없는 봉선화는 정숙한 여인의 기상  
 백옥(白玉)10)섬 조11)(흔) 흠의 종종이12) 심어 너니

1)부녀의 방(房)  
 2) 온갖 꽃에 대한 설명을 쓴책.  
 3) 헤치어.  
 4) 신선놀음.  
 5)仙境. 자줏빛 안개.  
 6) 부녀가 거처하는 방.  
 7) 넘나들며 노는.  
 8) 침착히.  
 9) 신선의 옷. 신선의 치마.  
 10) 희고 고운 섬돌.

/깨끗한 섬돌 깨끗한 흠에 촘촘히 심어내니  
 춘삼월(春三月)이 진논 후의 향기(香氣) 업다 웃지 마고  
 /봄삼월이 지난 뒤에 향기가 없다고 웃지를 마소  
 취(醉)헌 나비 미친 벌이 짜라올가 저허호닉13)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따라 올까 두려워하네.  
 정정(貞靜)14)호 저 기상15)(氣像)을 녀즈 밧기 뒤 벗홀고  
 /정숙하고 조용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벗할까?

□. 본사 2 -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  
 옥난간16)(玉欄干) 긴긴 날의 보아도 다 못 보아

/옥난간에서 긴긴 날을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17)(紗窓)을 반키18)(半開)호고 차환(차翼)을 불너 너여

/창문을 반쯤 열고 젊은 종을 불러 내어  
 다 핀 꽃출 킌어다가 수상즈(繡箱子)의 담아 노코

/다 핀 꽃을 따서 수상자에 담아놓고  
 녀공19)(女工)을 굿친 후의 등당20)(中堂)에 밤이 깊고  
 /바느질을 중단한 후 안채에 밤이 깊이 들고

납촉21)(蠟燭)이 발가슬 제  
 /밀촛불이 밝았을 때에  
 나옴나옴22) 고초 안즈 흰 구슬을 가랴 마야23)

/차츰차츰 꽃꽂이 앉아서 흰구슬처럼 생긴 백반을 갈아  
 빙옥24)(氷玉) 갖호 손 가온딴 난만25)(爛漫)이 키여 너여  
 /깨끗한 손 가운데 활짝 개어내니,

파스국26)(波斯國) 저 데후(諸侯)의 홍순호(紅珊瑚)을 혀  
 쳐논 듯  
 /페르시아의 제후가 좋아하는 빨간 산호를 펼쳐놓은 듯도

심궁 풍유(深宮風流) 절고27)의 홍수궁28)(紅守宮)를 마  
 아29)논 듯  
 /궁중에서 멋지게 절구질을 하여 빨간 도마뱀을 바수어  
 놓은 듯도 하다.

섬섬(纖纖)호 십지상(十指上)의 슈(繡)실로 감아 너니  
 /예쁘게 빠진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내니

11) 깨끗한.  
 12) 촘촘히. 배게.  
 13) 두려워하네.  
 14) 정숙하고 조용한.  
 15) 타고난.  
 16) '난간'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17) 비단으로 바른 창.  
 18) 가까이 모시는 젊은 종.  
 19) 여자의 하는 일. 곧 바느질.  
 20)집 안채.  
 21)밀초. 밀촛불.  
 22) 차츰차츰. 점점. '낫<어간>+옴<접미사>'→나옴>나옴  
 23)바수어(碎). 무오다> 마오다> 마다.  
 24) 맑고 깨끗하여 아무 티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  
 25) 흐무러지게. 광채가 넘쳐 흐르게.  
 26) 페르시아.  
 27) 절구.  
 28) 붉은 도마뱀. 한나라 무제가 단오날 도마뱀에 주사를 먹여 붉은 도마뱀을 만들었다 함. 약제 로 사용함.  
 29) 바순(碎).

조희 우회 붉은 물이 미미(微微)히 숨의논 양  
 /종이 위에 붉은 물이 열게 스며드는 듯하고  
 가인(佳人)의 앗흔 뺨의 홍노(紅露)를 끼쳐<sup>30)</sup>는 듯  
 /미인의 뺨에 수줍은 빛이 떠오르는 것과도 같다.  
 단단히 봉헌 모양 춘나옥<sup>31)</sup>(春羅玉字) 일봉서(一封書)  
 를  
 /단단히 봉해 놓은 모습은 비단에 옥으로 쓴 편지를  
 왕모<sup>32)</sup>(王母)에게 부친 듯  
 /서왕모에게 부치는 것과도 같다.

□. 본사 3 - 봉선화물이 든 손톱의 아름다움  
 춘면<sup>33)</sup>(春眠)을 늦초<sup>34)</sup> 끼여 차례로 푸러 노코  
 /봄잠을 늦게 깨어서 차례차례 풀어놓고  
 옥경탁(玉鏡臺)을 덕혀서 팔즈미<sup>35)</sup>(八字尾)를 그리랴니  
 /옥경대 앞에서 눈썹을 예쁘게 그리려고 하니  
 눈덕업는 붉은 꽃이 가지의 붓뿃는 듯  
 /난데없이 붉은 꽃이 눈썹에 붙어서  
 손으로 우회<sup>36)</sup>라니 분분<sup>37)</sup>(紛紛)이 훑터지고  
 /손으로 움켜잡으려 하니 어지러이 흩어지고  
 입으로 불야 하니 섯낀 안기 가리와다  
 /입으로 불려고하니 입김이 가리워졌다.  
 녀반<sup>38)</sup>(女伴)을 서로 불너 낭낭<sup>39)</sup>(朗朗)이 자랑하고  
 /여자 친구를 불러 놓고 즐거이 자랑하고  
 꽃 압회 나아가서 두 빗출 비교(比較)하니  
 /봉선화꽃 앞에 가서 꽃과 손톱을 비교하니  
 쪽 입회 푸른 물이 쪽의<sup>40)</sup>여서 푸르단 말 이 아니 오를  
 손가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도 더 푸르단 말이  
 이것을 두고 말이 아닌가.

□. 결사 - 규중 처자와 봉선화와의 인연  
 은근이 풀풀 덕고 도라와 누어더니  
 /은근이 풀을 매고 돌아와서 누었더니  
 녹의홍상<sup>41)</sup>(綠衣紅賞) 일녀즈(一女子) 마 표년<sup>42)</sup>(飄然)이  
 압회 와서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훌쩍 내 와

30) 끼친 듯.  
 31) 비단에 옥으로 박은 글씨.  
 32) 瑤池(중국 곤륜산에 있는 못. 신선이 살았다고 함.)에 사는 西玉母. 중국 고대에 받들던 仙女 의 하나. 한무제에게 西王母가 仙桃 일곱 개를 주었다는 전설이 있음.  
 33) 봄잠.  
 34) 늦게.  
 35) 八字 모양의 눈썹.  
 36) 움켜라니. 움켜 잡으려 하니.  
 37) 어지러이.  
 38) 여자 친구.  
 39) 명랑한 마음으로 즐거이.  
 40) 쪽빛보다. '의여서'는 비교격 조사. '쪽 낱희 ~ 오를손가'는 '靑出於藍而靑於藍'을 직역한 구절임. 이를 약해서 '出藍'이라고 하여 제자가 스승보다 낫게 출세함을 뜻함.  
 41)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  
 42)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

서  
 웃는 듯 쟁그<sup>43)</sup>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웃는 듯, 쟁그리는 듯, 사례하는 듯, 작별인사를 하는  
 듯하다.  
 몽농<sup>44)</sup>(朦朧)이 잠을 썬여 정녕<sup>45)</sup>(丁寧)이 싱각하니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니 너게 와 하직<sup>46)</sup>(하직)한다  
 /아! 꽃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한다.  
 슈호<sup>47)</sup>(繡戶)를 급(急)회 열고 꽃수품을 경경하니<sup>48)</sup>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을 급히 열고 꽃수품을 살펴보  
 니  
 짜 우회 붉은 꽃치 가득히 슈(繡) 노한다  
 /땡 위에는 붉은 꽃으로 가득히 술을 놓았다.  
 암암<sup>49)</sup>(黯黯)이 스러하고 낫낫치 주어 닻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날날이 주어담아  
 꽃다려 말 붓치덕 그덕는 혼(恨)치 마쇼  
 /꽃에게 말을 걸되 그대는 한하지 마쇼.  
 시세 년년(歲歲年年)의 꽃빛춘 의구<sup>50)</sup>(依舊)하니  
 /연년세세에 꽃빛은 예와 같으니  
 허물며 그덕 닻최 너 손의 머무러지  
 /허물며 그대의 자취가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sup>51)</sup>(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편시춘<sup>52)</sup>(片時春)을 즐  
 랑 마쇼  
 /동산의 복사꽃과 외얏꽃이여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  
 지 마쇼.  
 니십번<sup>53)</sup>(二十番) 꽃바람의 적막(寂寞)히 썬러진들  
 /꽃바람에 적막하게 떨어진들  
 뉘라셔 슬허홀고.  
 /누가 슬퍼할까.  
 규중(閩中)의 남은 인연(因緣) 그덕 혼 몫분이로세  
 /안방에 남은 인연은 그대 한 몸뿐일세.  
 봉선화(鳳仙花) 이 날흠을 뉘라셔 지어 놓고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일노<sup>54)</sup> 하여 지어셔라  
 /이로 인해서 지은 것이로구나!

43) 쟁그리는.  
 44) 어렴풋이.  
 45) 곰곰이.  
 46) 하직한 것인가.  
 47)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  
 48) 살펴보니.  
 49) 마음이 상하여.  
 50) 예대로 임.  
 51) 동쪽 동산. 여기선 동산의 뜻.  
 52) 잠깐 지나가는 봄.  
 53) '二十四番 花信風'인 뜻함. 二十四番 花信風은 小寒에서 穀雨에 이르는 사이에 꽃 1種씩을 配當하였다.  
 54) 이로 인하여. 이<대명사>. + 르<<첨가울> + 로<원인격>.

b1

- (1) X(흥취X), O, O, X(대상이 의인화)
- (2) X(풍상은 추구하는 태도가 아님), O, X(유사성이 아니라 대비), X(화자가 황국화를 보낸 것이 아님)
- (3) x(자신의 우월함), o, x(변화를 예찬하는 것이 아님)
- (4) x(화자는 고사리를 먹지 않음), o, x(인물이 대화를 주고 받지 않음)
- (5) O, X(정신에서 물질로), O, X(백성의 말을 가정함)

b2

- (1) x(자리를 넘보는 것은 아님), x(현재 고공은 근검하지 않음), o, x(화강도와 고공은 다름), o
  - (2) x(비판), x(작가와 관련 없음-시적 대상이 증오의 감정이 있을 뿐), o, x(아워어가는 남편과 자식의 모습), x(불공이나 미신을 믿는 행위를 비판)
- o, o

B3- (1) o, o, x(약간 애매한 선지이므로 지워지실 바랍니다.), x(산촌은 현재 화자가 위치한 장소일 뿐)

(2) X(비탄이 아님), o, x(허영심 아님), x(청풍은 지향 가치 중 하나임), X(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뿐)

X (시련이 아니라 잠을 깨우는 매개물 혹은 흥취)

(3) 5(달리가 아니라 둘 다 지향 사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남), 4(어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어부일 뿐), 3, 1(내가 시름할 일이 아니지라는 것은 시름하고 있다는 것임), 4(보기를 통해 볼 때 담박한 맛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음)

(4) o, x(무상감이 아님), o, x(아이는 의인화의 대상이 아님)

(5) x(회의적 태도가 아님), o, x(거문고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 x(없음)

B4

(1) X(아름다운 아가씨가 작가 개입은 아니며,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O, X(극복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X (임과의 틀어졌던 과거를 회상하는지는 알 수 없다.)

(2) o, o, x(자신으로 인해 병이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 헤어져야지⇒), x(그리움인지 알 수 없음)

(3) O(답 수정), X(답 수정), o(보기 제시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 두세요), x (의지가 아님)

(4) o, x(후회와 관련 없음), x(부재인지 알 수 없음), x(호미와 낮은 비유일 뿐), O(답 수정)

B5

(1) x(안도가 아님), o, o, o, x(위안이 아님) x(흥취가 아님), o

(2) o, o, x(셋째 남편을 구하지는 않음), x(재가 반대임을 추론할 수 있음), x(남해수에서 고생한 것은 청춘 과부가 아니라, 텐동 어미의 셋째 남편일 거라고 추측 가능)

(3) o(시집=개집), O, O, O(수정), X(거위, 오리는 자식을 의미)

o(오리, 십리 등등)

B6

(1) O, O, O, X(설의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님), X(비애감이 아님)

3

(2) 2(꽃이 아닌, 꽃 노래를 비교할 이유가 없음), 3